

【특집·로마자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 실태

김세중

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관

I. 들어가기

우리말을 로마자로 적는 일은 애초에 외국인들의 관심사였다. 서양인들은 대체로 로마자를 문자로 쓰고 있었고 한국에 대해 언급할 때, 특히 한국의 지명이나 인명을 언급할 때에 로마자로 적지 않을 수 없었다. 이미 19세기부터 서양인들은 한국의 지명이나 인명을 로마자로 적기 위한 체계적인 표기법을 고안해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영향력 있는 표기법은 1939년에 만들어진 머큐 라이사워 표기법이다. 이 표기법은 현재 대부분의 영어 지도에서 한국 지명을 표기할 때에 이용되고 있어서 한국어 특히 한국 지명을 적기 위한 표준화된 표기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우리 나라에서는 1959년부터 1983년까지 약 4반세기 동안 정부의 공식 표기법이 있었다. 이 표기법은 1984년 1월 13일에 새로 고시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의해 폐지되었다. 1984년에 고시되어 현재 발효중인 현행 표기법은 머큐 라이사워 표기법과 그리 다르지 않다. 지명뿐 아니라 인명, 기관명 등이 어

편 방법으로 국내외에서 로마자로 적히고 있는지를 살펴보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II. 국내 실태

1. 도로 표지판과 지하철역의 지명 표기

전국의 고속도로와 국도의 도로 표지판에는 지명이 한글과 로마자로 표기되어 있다. 실제로 로마자 표기는 1984년에 고시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되어 있다. 도로 표지판의 제작은 정부의 규정에 따라 간판 제작자들이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고시한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고 있다. 그러나 로마자 표기법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담당자들의 실수로 엉뚱하게 표기되어 있는 경우는 이따금 나타난다.

한 예로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에는 로마자 표기로 Indökwon으로 되어 있는데 Indögwon이 옳다. 이는 실수라 할 것이다. 모음 '꺠'는 wo로 적도록 되어 있는데 wö로 표기된 사례도 많다. 이 역시 표기법을 정확히 알지 못한 데서 나온 것이다. 도로 표지판과 지하철 역명의 로마자 표기가 잘못되었다면 이는 표기법을 지키려고는 하였으나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실수이지 의도적인 것이 아니다.

중요하게 언급되어야 할 것은 반달표와 어긋점이다. 현행 로마자 표기법에는 "인쇄와 타자의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의미의 혼동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 반달표와 어긋점을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전국의 도로 표지판과 지하철 역에는 반달표와 어긋점을 생략하지 않고 다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김포공항 내에 국내선 항공기 노선의 출발과 도착을 알리는 안내판의 로마자 표기에는 반달표와 어긋점이 생략되어 있다. 예를 들어 '목포'는 Mokp'o

이나 어갯점을 생략하여 Mokpo로 표기되어 있다. 또한 대한항공에서 만든 국내선 항공편 안내 책자에도 반달표와 어갯점은 생략되어 있다. 예컨대 '여수'는 Yosu로 적어야 하나 반달표를 생략하여 Yosuro로 표기되어 있다. '요수'라는 지명이 없으므로 Yosuro라 표기해도 의사 소통에 별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하겠다. 그러나 인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인명 표기

한국인에게는 한글이란 편리한 문자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글만으로 문자 생활을 할 수는 없게 되어 있다. 여권에는 이름을 한글로 표기함은 물론 로마자로 표기하게 되어 있다. 신용카드에도 로마자로 이름이 각인되어 있다. 여권과 신용카드는 특수층의 전유물에서 벗어나 대중에게 보급되어 있다. 따라서 로마자 표기는 일부 특수층만의 문제일 수는 없게 되어 있다. 한때 머쿤 라이사위 표기법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로마자 표기란 평범한 일반 대중은 할 일이 없고 따라서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반론이 머쿤 라이사위 표기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왔다. 여권과 신용카드가 대중화되어 있는 요즘 로마자 표기는 일부 전문가들만 할 줄 알면 된다는 논리는 더 이상 지지를 받기 어렵다 할 것이다. 아직도 머쿤 라이사위 표기법을 옹호하는 일부 외국인들은 머쿤 라이사위 표기법이 보통의 한국 사람들에게 너무 어렵다면 로마자 표기를 안내해 주는 상설 안내 사무실을 정부에서 열어서 보통의 국민들이 이 사무실로 로마자 표기를 문의하면 될 것이 아닌가 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한다.

로마자 표기의 필요성은 지식인이거나 외국과의 교류 가능성이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커진다. 명함에는 이름뿐 아니라 직장 주소가 로마자로 표기된다. 회사명의 로마자 표기는 필수적이라 할 정도이다.

우리 국민들이 자기 이름을 어떤 표기 방법에 따라 로마자로 적는지 알기 위해 연합통신사에 퍼낸 Korea Annual 1996에 수록된 인명 가운데 846명의 표기를 살펴보았다. Korea Annual 1996에 수록된 인명은 이른바 우리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이며 그 중에는 외국에서 유학이나 근무를 한 사람들도 적지 않다.

우선 성씨를 보자. '강' 씨는 Kang이 대부분이고 표기법과 일치한다. '고' 씨는 Ko, Koh가 나타나는데 Ko가 표기법과 일치하는 표기이다. '구' 씨는 Koo가 많은데 표기법에 따르면 Ku이다. '김' 씨는 Gim으로 적은 사례가 하나 나타나고 나머지는 모두 Kim인데 Kim이 표기법과 일치한다. '문' 씨는 표기법에 따른 Mun으로 적은 사람은 없고 모두 Moon으로 적고 있다. '박' 씨는 Park으로 적은 사람이 대부분인데 표기법에 따르면 Pak이다. '배' 씨의 경우는 Bae로 표기하고 있는데 표기법에 따르면 Pae이다.

'서' 씨는 Suh로 적은 예가 대부분이나 표기법에 따르면 Sö이다. Sö로 적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성' 씨는 Seong, Sung을 쓰고 있었지만 표기법에 따른 Söng으로 쓴 사람은 없었다. '신' 씨의 경우 표기법에 따른 Shin으로 대부분 적었지만 Synn으로 적은 사례도 있었다. '안' 씨의 경우 Ahn이 대부분이었고 An으로 적은 사례가 드물게 나타났다. '엄' 씨는 Um과 Uhm의 사례만 나타났으나 표기법에 따르면 Öm이다. '오' 씨는 모두 Oh로 적고 있는데 표기법에 따르면 O이다. '유' 씨는 매우 다양하게 표기되고 있다. 표기법과 일치하는 Yu도 있지만 Yoo, Ryu, Joo, Rew, You, Lew 등이 쓰이고 있다. '윤' 씨는 Yoon이 더 많고 Yun은 드물게 나타나는데 표기법과 일치하는 것은 Yun이다. '이' 씨는 Lee가 압도적이나 다른 표기도 나타난다. Yi, Rhee, Ri, Rhie 등이 쓰였다.

'장' 씨는 Chang이 압도적이고 Jang이 부분적으로 쓰이는데 표기법에 따른 표기는 Chang이다. '전' 씨는 Chun, Chon, Jeon이 쓰이고 있는데 표기법에 따르면 Chönn이다. '정' 씨는 Chung이 가장 많고 그 밖에 Jhung, Jeung이 쓰인다. 그러나 표기법에 따른 Chöng은 발견되지 않는다. '조' 씨는 Cho가 가장

많이 쓰이지만 간혹 Jo, Joh, Zoh, Zo, Chou, Chough도 쓰인다. ‘진’ 씨는 표기법에 따르면 Chin이나 주로 Jin으로 적는다. ‘차’ 씨는 표기법에 따르면 Ch’a이나 모두 어갯점을 생략하여 Cha로 적는다. ‘채’, ‘천’, ‘최’ 씨 등도 어갯점이 있어야 하나 어갯점을 쓰는 사람은 없다. ‘최’ 씨의 경우 표기법에 따르면 Ch’oe이나 Choi가 훨씬 더 많고 Choe는 드물다. 그 밖에 Choy, Chey로 적는 경우도 있었다.

‘허’ 씨의 경우 Huh, Hur로 적고 있으나 표기법에 따르면 Hō이다. ‘현’ 씨의 경우는 표기법에 따르면 Hyōn이나 Hyun이 대부분이다. ‘홍’ 씨는 표기법과 일치하게 모두 Hong으로 적고 있다. ‘황’ 씨의 경우는 표기법과 일치하게 Hwang이 대부분이나 Huang의 예도 나타난다.

모음 표기에서 ‘ㅣ’를 표기법에 따라 ō로 표기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대부분이 u나 uh로 쓰고 있었다. 그런데 ‘ㅣ’를 u나 uh로 표기하는 것은 체계적인 표기법에서는 없다. ‘ㅓ’의 경우는 oo가 대부분이고 표기법에 맞게 u로 적는 사례는 드물다. ‘ㅕ’도 마찬가지로 yoo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ㅣ’의 경우는 i와 ee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난다. 자음의 경우 ‘최’, ‘차’, ‘천’, ‘추’ 씨 등에서 어갯점을 쓰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이름의 경우도 성과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는데 다만 이름에는 ‘ㅣ’ 모음이 eo로 표기되는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난다. 이름에 ‘ㅡ’가 들어 있을 경우 표기법에 따른 ü는 나타나지 않는데 eu가 u보다 더 많다. ‘ㅣ’의 경우 성씨에는 i와 ee가 비슷한 정도로 많이 나타나지만 이름에는 i가 훨씬 많이 나타난다.

이름에는 ‘ㄷ’이 초성에 나타났을 때 d로 적는 사례가 t로 적는 예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ㅂ’도 b로 나타나는 사례가 p로 적는 예보다 훨씬 많이 나타난다. ‘ㅈ’도 j로 적는 사례가 ch보다 훨씬 많다. 성의 경우와는 반대 현상이다. 예를 들어 ‘조성준’을 Cho Sung Joon으로 적거나 ‘조재석’, ‘조종석’을 Cho Jae Suk, Cho Jong Seok으로 적는 사례가 성을 적을 때와 이름을 적을 때 다른 글

자를 쓴 예들이다. '박범진', '박봉배'를 Park Bum Jin, Park Pong Bae로 적는 사례도 마찬가지로이다. 이런 예들은 국어의 동일한 소리를 성에 적을 때와 이름에 적을 때에 서로 다르게 로마자 표기한 것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물론 한 가지 해석 방법이 있기는 하다. 즉 성은 '조' 씨가 Cho, '박' 씨가 Park으로 굳어져 있으니깐 그냥 그대로 두고 이름에 대해서만은 '스'를 j, '비'를 b로 하는 표기법을 적용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그것이다.

3. 회사명

회사 이름 가운데 모음 'ㅣ'가 135개가 나타났는데 u로 73, uh가 2, eo가 33, o가 30, ø는 0으로 나타났다. 크게 보아 u, eo, o의 세 가지 방법으로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ㅜ'의 경우 u, oo, woo의 순으로 나타난다. 인명과 달리 'ㅣ'를 ee로 쓰는 사례는 거의 없으며 i로 대부분 표기되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자음의 경우 'ㄱ'은 k가 g보다 약 5:1의 비율로 더 높게 나타나나 'ㄷ', 'ㅂ', 'ㅈ'은 표기법에 따른 t, p, ch가 d, b, j보다 더 적게 나타난다. 받침 'ㄱ'을 g로 표기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모두 k로 표기하고 있다. 초성을 g로 적는 경우에도 받침은 k로 적는 것은 받침에서는 k로 적어야만 발음이 보다 가까워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으로 보인다.

인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체계적인 표기를 택하지 않은 예가 더 많다.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 현대, 대우만 보더라도 구문교부 표기법에 따르면 Samseong, Hyeondae, Daeu이고 현행 표기법에 따르면 Samsŏng, Hyŏndae, Taeu이나 지금 각 기업에서 내거는 표기는 Samsung, Hyundai, Daewoo이어서 어느 표기법에도 맞지 않다. 그리고 현대의 '대'나 대우의 '대'나 같은데도 dai, dae로 달리 쓰고 있다. 회사명을 로마자로 표기할 때 얼마나 편의적으로 하고 있는지 잘 보여 주는 예들이다. 회사명 표기는 아예 표기법에 따르지 않는다고 규정할 것인

가? 지금의 현실을 보면 마치 그런 규정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4. 국내 영자 신문의 표기

우리 나라 최초의 근대적 신문인 독립신문의 영문판 The Independent를 보자. 창간호인 1896년 4월 7일자에는 '경성, 해주, 공주, 문천, 박천, 영암, 익산, 덕산, 정읍, 봉산, 진잠, 파주, 안산, 정평'을 각각 Kyung Sung, Hai Ju, Kong Ju, Mun Chun, Pak Chun, Yung Am, Ik San, Tok San, Chong Eup, Bong San, Chin Cham, Pa Ju, An San, Chŏng P'yung으로 적고 있다. 4월 9일자에는 '위원, 금구, 태인, 정읍, 장성, 영광, 무장, 고창, 흥덕, 고부, 부안, 김제, 만경, 옥구, 함열, 용안, 익산, 여산, 고산'을 Wi Won, Chun Ju, Keum Ku, T'a Ju, Cheung Eup, Chang Song, Yong Gwang, Mu Jang, Ko Chang, Heung Dŏk, Ko Bu, Pu An, Kim Jé, Man Gyung, Ok Ku, Ham Tol, Yong An, Ik San, Yŏ San, Ko San으로 적고 있다. '정읍'이 각각 Chong Eup, Cheung Eup으로 달리 적히고 있음이 발견된다. 또한 '경성'을 Kyung Sung으로 적는 것처럼 'ㅣ'를 u로 적는 뿌리 깊은 습관이 이미 1896년에도 나타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전주'를 Chun Ju로 적음으로써 'ㅣ'나 'ㅈ' 모두 같은 u로 적는 예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예들은 당시에 일정한 원칙에 따라 로마자 표기를 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 준다.

당시의 인명 표기에서 특이한 것은 '김' 씨를 Kim으로 적고 있는 것과 '이' 씨가 Yi와 Ye가 나타날 뿐 요즘 보편적인 Lee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박' 씨는 Pak으로 적고 있다. 그리고 '민영환'의 '환'을 Whan으로 적고 있는데 'ㅎ'을 wh로 적는 방법을 채택한 것이다.

오늘날은 어떤가? 국내 영자 신문의 하나인 Korea Herald는 한국 지명을 적을 때에 현행 표기법대로 하되 반달표와 어긋점을 생략한다. '서울, 대전, 춘천,

강릉, 대구, 부산, 제주' 등을 Seoul, Taejon, Chunchon, Kangnung, Taegu, Pusan, Cheju로 적고 있다. '강원, 원통은 Kangwon, Wontong이다. 반달표와 어긋점의 생략은 아예 내규로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인천은 언제나 Inchon이지 Inch'ŏn으로 표기되고 있지 않으며 서초는 Sŏch'o가 아닌 Socho이다.

그러나 이 신문에서 현행 표기법이 반달표와 어긋점의 생략을 제외하고는 일사불란하게 지켜지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1997년 6월 6일 특집으로 동대문 시장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평화 시장, 신평화 시장, 동평화 시장'을 각각 Pyonghwa Market, Shinpyonghwa Market, Dongpyonghwa Market로 적고 있다. '동평화'를 표기법대로 따라 적자면 반달표와 어긋점을 생략하더라도 Tongpyonghwa가 됨은 물론이다.

그뿐이 아니다. 분당의 '정자동'은 6월 6일 8면 기사에서 Jungja-dong으로 표기하였고 '신사동'은 Sinsa-dong, 전주 완산구의 '효자동'은 Hyocha-dong으로 표기하였는데 표기법에 따르면 각각 Chŏngja-dong, Shinsa-dong, Hyoja-dong이다. '과외'를 Kwaway(1997. 6. 7.)로 적는 것도 체계적인 표기법에 따른 것이 아니다.

인명은 아예 원칙이 없어 보인다. 김현철의 '현철'을 Hyun-chul로 적는다는지, '정동영'을 Chung Dong-young이라 적은 것은 비체계적이고 편의적인 표기의 예다. '이석'을 Lee Suk으로 표기한 것도 현행 표기법을 안 따른 것이다. '유지웅'을 Yu Ji-wong으로 표기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5. 종합

로마자 표기법은 1984년에 고시되었으나 교과 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배울 기회가 없다. 개인이 따로 관심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공부하지 않는 한 로

마자 표기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도리가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로마자 표기법이란 것이 있는 줄도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이 점은 상당히 높은 학력을 갖춘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지도층 인사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로마자 표기법이란 게 있는 줄도 모른 채 자기 나름대로 제 이름을 로마자로 표기하고 있는 것이다.

한 예로 1997년 4월에 경기도 소재 한 대학의 학생 12명에게 '대전'을 로마자로 쓰게 해 보았더니 12명의 학생이 전부 다르게 표기하였는데 12가지 어느 것도 현행 표기법과 일치하지 않았다. 이것은 현행 표기법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쓰고 있는 표기는 일정한 원칙이 없이 각자의 지식과 직관에 따라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의 지식과 직관은 매우 무원칙하고 영성하기 짝이 없다. 예를 들어 '송훈석'을 Song Hun Suk과 같이 'ㄱ'도 u, 'ㄴ'도 u로 적는 것이 그런 예이다. 일정한 원칙이 없다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표기를 한다는 것과 통한다. 예측 불가능한 표기는 한글로 무엇을 표기한 것인지 알 수 없게 함은 물론 발음도 어렵게 한다. Song Hun Suk에는 u가 두 번 나오는데 서로 다르게 읽어야 한다고 생각할 외국인은 없을 것이다.

III. 국외 실태

1. 영어

영어권에서는 1939년에 처음 만들어진 머쿤 라이사위 표기법이 한국의 지명, 인명을 로마자로 적는 데에 널리 사용되어 왔다. 지도나 백과사전이 거의 일치되게 머쿤 라이사위 표기법을 따라 한국의 지명을 적고 있다.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Encyclopaedia Britannica(1979)와 유명 지도의 하나인 Philip's

Atlas of the World(1995)의 한국 지명 표기를 보면 머쿤 라이샤워 표기법을 철저히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전자인 브리태니카 백과사전은 반달표와 어긋점까지 다 표기함을 원칙으로 삼고 있어 보인다.

그런데 영어권의 이들 자료는 머쿤 라이샤워 표기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현행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과는 일부 다른 경우가 생긴다. 첫째, 국어의 '시, 식, 신, 실, 심, 십'의 'ㅅ'을 s로 표기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현행 표기법에 따르면 sh이다. 둘째, 'ㄱ'을 w로 표기하고 있는데 현행 표기법에 따르면 wo이다. 셋째, 격음화한 결과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아 일테면 '목호'를 Mukho로 표기하고 있는데 현행 표기법에 따르면 Muk'o이다.

2. 독일어

1988년에 나온 백과사전 Brockhaus-Enzyklopädie에는 한국 지명이 대체로 머쿤 라이샤워 표기법에 따라 표기되어 있다. 그래서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청주, 전주, 제주'가 각각 Pusan, Taegu, Kwangju, Inchon, Taejon, Chongju, Chonju, Cheju로 되어 있다. 그리고 서울은 Seoul로 표기되어 있는데 머쿤 라이샤워 표기법에 따르면 Söul이 되지만 굳어진 관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것은 '평양'의 표기이다. 머쿤 라이샤워 표기법에 따르면 P'yöng-yang이다. 그런데 이 지도에는 Pjongjang로 되어 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도 각각 Pjongan-namdo, Pjongan-pukto로 표기되어 있어서 평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평'을 P'yöng가 아닌 Pjong로 표기하고 있다. 독일어에서는 y가 아닌 j가 반모음을 나타내는 것을 반영한 듯이 보인다. 그런데 같은 이중모음이 나타나 '경주'는 Kyongju로 표기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다.

또 '목호'가 Mukho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머쿤 라이샤워 표기법에 따른 것이

다. 또 '신의주'가 Sinuiju로 되어 있는데 역시 머쿤 라이샤워 표기법에 따른 것이다.

이 책에는 반달표와 어긋점이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다. 즉 반달표와 어긋점을 모두 생략하였다. 예를 들어 '영천'은 Yŏngch'ŏn이 되어야 하는데 Yongchon으로, '춘천'은 Ch'unch'ŏn으로 표기되어야 하는데 Chunchon으로 표기되어 있다.

1994년에 나온 Meyers neuer Weltatlas의 한국 지명도 마찬가지로 머쿤 라이샤워 표기법에 따라 표기되어 있다. 그래서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이 각각 Pusan, Taegu, Kwangju, Inchon, Taejon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서울'은 Seoul로 표기되어 있고 '평양'은 Pjongjang으로 표기되어 있다. 또 '목호'가 Mukho로, '신의주'가 Sinuiju로 되어 있는 것도 같다. 반달표와 어긋점이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다. 설악산의 '설악'이 Seolag으로 적혀 있는데 표기법에 따르면 Sŏrak이다. 왜 Seolag으로 나타나 있는지 의문스럽다.

독일에서 나온 두 자료를 검토해 보면 철저하게 반달표와 어긋점을 생략하고 있어서 한국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한글로 복원하기가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3. 프랑스어

1995년에 나온 Grand Atlas, 1986년에 나온 Le grand atlas de geographie, 그리고 1996년에 나온 Quid 1996의 한국에 관한 기술을 살펴보면 한국의 지명, 인명이 머쿤 라이샤워 표기법에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달표와 어긋점까지 다 표기하고 있다.

그런데 반드시 모든 자료가 한국 지명, 인명을 머쿤 라이샤워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는 것은 아니다. Dictionnaire des oeuvres de tous les temps et de tous les pays(1987)은 'ㅈ'을 dj로 표기하고 있고 'ㅊ'도 wa가 아닌 oa라 표기하고 있다.

Encyclopaedia Universalis(1985) 역시 체계적으로 'ㅈ'을 dj로 'ㅊ'을 oa로 'ㅊ'을 ae 또는 ai로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백과사전의 표기는 철저하게 체계적이지는 않아 보인다. '두만'을 Touman으로 표기하는 것처럼 'ㅌ'를 ou로 표기하는 경우, '불국사'를 Pulguksa로도 하고 Pulkuksa로도 하는 경우, '평양'을 Piöngyang으로도 P'yöngyang으로도 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4. 종합

지명의 경우는 미국과 영국에서는 머큐 라이샤워 표기법이 쓰이고 있고 독일과 프랑스도 영어식 표기 즉 머큐 라이샤워식 표기를 따르고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인명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개인의 고유한 인명 표기를 따르는 경우도 있고 프랑스처럼 아예 프랑스의 고유한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프랑스에서 'ㅈ'을 tch로 표기하고 'ㅈ'을 dj로 표기하는 것이 그 예이다.

IV. 결론

로마자 표기법은 국내에서는 도로 표지판이나 지하철의 지명 표기에서는 대체로 지켜지고 있지만 개인이 자기 이름을 표기할 때에나 기업이 회사명을 표기할 때에는 거의 이에 따르지 않는다. 거의 대부분이라 해도 좋을 정도로 일반 국민들이 현행 표기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간혹 아는 사람의 경우에도 반달표와 어쨌점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지거나 그것들을 컴퓨터에서 찍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표기법을 따르기보다는 개인적인 표기를 하고 있다. 표기법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는 u를 'ㅊ'에도 쓰고 'ㅌ'에도 쓴다든지, 형제가 성을 서로 다르게 로마자로 적음으로써 서로 다른 성이 되어 버리는 것과 같은 현상들이다. 지키지 않아도 그만인 표기법의 미약한 구속력도 문제이지만 지키고 싶어

도 지키기 어려운 표기법 자체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누구든 표기법을 지킬 수 있게 표기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만들어진 표기법을 모두가 준수하도록 교육과 계몽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현재와 같은 로마자 표기의 혼란상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구나 제 마음대로 표기하게 언제까지 방관할 것인가?

외국에서는 지도 등에서 한국의 지명은 머큐 라이사워 표기법이 널리 쓰이고 있다. 단, 반달표와 어긋점은 잘 찍지 않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에게는 ‘ㄱ’과 ‘ㄴ’, ‘ㄷ’과 ‘ㄹ’이 별로 구별되어 들리지도 않고 ‘ㄱ, ㄴ, ㄷ, ㄹ’과 ‘ㄷ, ㄴ, ㄹ, ㄷ’도 마찬가지라 하더라도 우리에게서는 소중한 구별이다. 반달표와 어긋점의 단순한 생략은 국어의 소중한 음운 대립을 포기하는 것이다. 반달표와 어긋점을 생략하지 않고 늘 찍어 주든지 아니면 반달표와 어긋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별해 주든지 택일해야 할 것이다. 반달표와 어긋점이 찍힌 글자가 영어를 비롯해서 서양 언어들에서 사용되지 않는 글자임을 생각할 때 해답은 자명해진다고 본다.

흔히 로마자 표기와 영어는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반달표와 어긋점 같은 구별 기호는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로마자 표기와 영어는 사실상 같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글로 표기된 외국의 지명이 한국어 백과 사전에 오르듯이 로마자로 표기된 한국의 지명은 영어와 기타 로마자를 쓰는 언어로 쓰인 백과 사전과 지도에 오른다. 즉 한국의 고유명사 로마자 표기는 영어 속에 쓰이게 마련이고 로마자 표기와 영어가 다를 이유가 없다. 영어에서 쓰이지 않는 반달표와 어긋점이 없어져야 할 이유이다.

참 고 문 헌

국립국어연구원(1996) 국어의 로마자 표기 자료집.

김세중(1991), “로마자 표기법의 몇 가지 문제”, 주시경 학보, 제8집, 탑출판사.

58 새국어생활 제7권 제2호('97년 여름)

서정수(1991), “우리말 이름의 로마자 표기에 관하여”, 새국어생활 제1권 제1호, 국립국어연구원.

송기중(1996),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사용실태 조사연구, 문화체육부 보고서.

이상억(1994), 국어의 표기 4법 논의, 서울대학교 출판부.

이익섭(1997), 로마자 표기법의 성격, 원고.